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신 동 희 (Donghee Sinn)**

김 유 승 (You-seung Kim)***

목 차

- | | |
|--------------------|-----------------------|
| 1. 시작하는 글 | 5. 수집정책 사례 분석 |
| 2. 선행연구 분석 | 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
| 3. 디지털 시대의 수집정책 | 7. 맺는 글 |
| 4.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수집정책 | |

<초 록>

수집정책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다. 특히, 구조적, 재정적 지속성이 부족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장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태생적 특성과 대다수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이성으로 인해 수집정책의 요소와 내용은 실물 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의 수집정책과는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노근리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탐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을 구축하였다.

주제어: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도큐멘테이션 전략, 디지털 기록, 선별과 평가, 수집정책

<ABSTRACT>

A collection policy (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a document that archival institutions must have to allow them to build their collections legitimately and consistently. Digital archives often lack sustainable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s. Thus,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digital archives to have a policy for consistent collection activities. Digital archives have a different set of characteristics from physical records, and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a collection policy. This study was initiated to create such a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It reviewed existing literature for collection policies in archives and digital archives. Moreover, it examined several cases of digital archives and their policies to identify the necessary elements as well as the legal and procedural coverages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Furthermore, it studi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o Gun Ri incident and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Based on such investigation, a collection policy for the No Gun Ri Digital Archive was suggested. It is believed that suggesting a practical collection policy will provide a useful precedent for future digital archive projects.

Keywords: No Gun Ri Digital Archive, documentation strategy, digital records, selection and appraisal, collection policy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6027).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는 김수진(중앙대학교 박사과정), 김유승(중앙대학교 부교수), 류반디(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박태연(중앙대학교 강사), 신동희(University at Albany 부교수), 윤은하(전북대학교 조교수) (가나다 순)가 참여하고 있음.

**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부교수(dsinn@albany.edu)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6년 7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6년 8월 1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2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201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3.001>>

1. 시작하는 글

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수집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해주는 문서로서의 수집정책은 기관의 장서 구축에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적의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기록관리기관은 각각의 수집정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Phillips, 1984; Reed-Scott, 1984; Sauer, 2001). 수집정책이 오프라인 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선별, 평가, 수집 과정을 거쳐야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에도 수집정책이 필요하다. 장서의 수집과 운용에 있어서 일관된 형식,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주는 수집정책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집정책은 디지털 장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디지털 장서를 수집, 운영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전통적 인쇄 장서의 수집정책과 그 기능이 다를 바 없다(Kennedy, 2005). 다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니는 태생적인 특성들로 인해 그 수집정책의 구성은 상이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 또는 디지털 프로젝트가 갖는 한시성, 디지털화라는 추가적 절차 등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전통적인 방식과 차별되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운영주체와 자료적 측면에서 여타 아카이브와 구분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특정 기관의 산하에 존재하는 아카이브가 아니며,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단의 연구집단에 의해 구축되는 연구 기반의 실험적 아카이브라는 점, 둘째, 학살사건과 이후 반세기에 걸친 진상규명활동 그리고 기억의 재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기록과 자료의 출처 및 형태가 다양하여 일관된 장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이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성으로 드러난다. 이런 디지털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집정책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팀은 준용할 수 있는 기존의 수집정책을 찾을 수 없었고, 자체적 수집정책의 개발은 연구팀의 과제가 되었다. 수집의 기본 계획, 범주 및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절차적 근거를 안내하는 수집정책의 수립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본격적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의 경험과 역사를 담은 증언과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보존, 유지,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제작하고, 여기에서 학술연구자로부터 일반 이용자까지 관련 기록의 활용과 참여를 보장받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는 구축된 장서의 다양한 해석, 사회적 기억의 지속적인 저장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기억의 기록관'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고는 이러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명 수행에 부합되는 수집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노근리 기록물 수집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등을 명시하는 수집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성을 반영한 수집의 범위, 방향, 방법, 주체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구술채록, 사진채록 등을 포함한 기록 생산의 범위, 방식, 책임 및 권한 등 수집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의 민간 기록 수집정책에 대한 초기 연구성과로는 대학의 역사기록물을 시간적,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기록관의 사명문, 수집분야 및 우선 순위, 기록물 수용 지침을 분석한 장윤희(2005)의 '대학기록물 수집정책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후 연극기록, 연구기록물, 교회역사 자료 등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의 수집정책이 연구되었다. 정은진(2011)은 연극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 범위, 대상, 우선순위, 방법과 컬렉션 편성을 포함한 수집정책을 다루었으며, 김수진, 정은경(2012)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 방안을 수집과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교회의 특징 및 수집정책에 관한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를 통해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을 수립한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2015)의 연구가 있다.

그 외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기본적 구성요소와 보완적 구성요소로 나누어 실제 운영 중인 아카이브에서의 수용 정도를 평가한 한수연(2005)의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와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를 위한 요건으로 포괄적 대상 수집, 민간영역 기록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록화 주제 설정과 조직체계 구성, 기록화 주체의 정

치적 입장 문제 등을 논한 오명진(2012)의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 기관의 수집정책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병무 행정기록물을 보완할 수 있는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을 다룬 이정희(2009), 해외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간기록물 정책과 기증 및 위탁 안내에서 공통으로 제시되는 요소를 수집기준, 수집방법, 저작권 규정, 접근제한 및 처분 규정으로 나누어 정리한 김지현(2014), 미국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한 강민정, 이승휘(2015) 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성과의 양은 기록학 영역의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략하다. 특히, 복합적 조직 기반과 형태적 특성을 지니는 기록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 수집정책을 논한 연구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더구나 이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연구는 전무하다.

해외 연구에서, 수집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의 중요 요소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Phillips, 1984; Reed-Scott, 1984; Smyth, 1999). Phillips(1984)와 Reed-Scott(1984)의 연구에 나타났듯이, 수집정책의 초기 연구는 도서관의 수집정책이 어떻게 기록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Abraham, 1991). 그 이후 기록관의 성격, 장서 주제나 형태상의 특성에 따른 수집정책 연구들이 이어졌다.

Anderson(1985)은 경계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사 관련 기록의 수집정책을 연구하면서, 주제의 특성에 따른 수집정책을 논하였다. 자료의 형태별 특수성에 따른 수집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된 새로운 형태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위한 수집정책을 논한 Erwin, Sweetkind-Singer, & Larsgaard(2009)와 미국 의회 기록화전략 추진 과정에서 의회기록물의 수집정책 모델을 개발한 Phillips(1995) 등이 있다. 한편, Momryk(2001)은 캐나다 국립기록관을 위한 민간기록물 수집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주제를 위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기록을 아우르는 수집정책을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정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매우 적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수집정책을 논의한 연구들도 주제의 범위가 포괄적이던가, 전자기록물에 대한 수요가 낮았던 시기의 연구성과들이었다.

3. 디지털 시대의 수집정책

‘기록학용어사전’(2008)은 수집정책을 “보존 기록관에서의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토대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및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실”이며,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사항, 타 기록관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협력 방향, 제적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수집정책의 수립은 아카이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형의 기록을 수

집할 것인지 등을 성문화하여 아카이브의 방향을 체계화하는 일이다. 수집정책을 체계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은 일관성 있는 수집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 활동이다.

수집정책의 중요성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장서의 수집정책 필요성은 이미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Erwin, Sweetkind-Singer, & Larsgaard, 2009). 미국 국립정보표준기구(National Information Standard Organization)의 ‘우수 디지털 장서 구축 지침 프레임워크(A Framework of Guidance for Building Good Digital Collections)’가 제시한 아홉 원칙들 중 첫째가 바로 명확한 수집정책에 의거한 장서개발이다(NISO Framework Working Group, 2007).

수집정책의 기본 목적은 아카이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집의 목적, 수집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 수집을 통해 도움을 줄 대상, 수집의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항, 자원공유 및 협력 정책, 처분 관련사항 등을 포함하며, 수집정책의 실행, 검토를 위한 절차와 방법, 평가 선별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Phillips, 1984). Reed-Scott(1984)은 장서의 구축과 유지를 위하여 ‘계획 수립’, ‘효과적 자료선정 및 입수’, ‘컬렉션 평가 및 분석’, ‘공유 및 협력 기반 정책 개발’ 등 4가지 기본 요소를 골자로 문서화된 수집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Reed-Scott의 제안은 전통적인 장서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그 목적과 기능면에서는 디지털 장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수집정책은 전통적 인쇄 장서를 다루는 기록관 직원들의 정당한 수집업무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손실없는 복제, 전송, 유포가 용이한 디지털 장서의 태생적 특성은 저작권 침해의 상시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Kennedy, 2005). 따라서 디지털 장서를 위한 수집정책은 예측가능한 법적 상황에 맞는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수집정책은 수집업무의 성문화, 절차의 규정, 수집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법적인 보호 이외에도, 기관의 장서와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을 돕는다. 기관 내 직원의 이동이나 부서 변동 등의 상황에도 연속적이고 일관된 수집업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수집정책이다(Smyth, 1999). 수집정책의 유용성은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진다. 일반 예산의 지속적 지원 아래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보다, 한시적인 지원을 받아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수집정책은 원활하고 일관된 수집 활동의 근거가 되며, 지속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노근리디지털 아카이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수집정책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실제로 수집정책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며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Reed-Scott, 1984). 국내 상당수 아카이브에서 나타나는 수집정책의 부재 상황은 이를 반증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정책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한다. 다수 기록관의 수집정책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그 실제 수집법

위는 매우 협소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주제 분야에 특화된 아카이브의 경우 수집정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수집정책을 통한 수집의 우선순위 결정과 적극적, 창조적 수집을 위한 협력 구축은 이와 같은 유형의 아카이브에 있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Henry, 1980; Anderson, 1985; Grabowski, 1985).

4.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수집정책

수집정책의 중요성은 역설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전통적인 수집방식을 탈피하는 수집 평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Henry(1980)는 특정 민족 등 소외되는 기록의 수집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논하면서, 이를 위한 수집정책은 공공기록을 다루는 전형적 기록관의 수집정책과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공공기록물 중심의,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top-down) 접근법 또는 유명 주요인물 위주의 전통적 수집 방식을 극복하고, 일반인들로부터의 기록을 위한 상향식(bottom-up) 수집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관성적 기록업무에서 탈피하는 수집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잘 정비된 수집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Endelman, 1987; Henry, 1980).

Ham(1975)이 주창한 “활동가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라는 개념 아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존의 관행적 수집에서 벗어나 전

략적 수집에 집중하면서 등장하였다. 이 방식은 1970, 1980년대 기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급변하는 기록관 장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집단적 기억, 사회적 기억의 수집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위한 전향적 수집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엘리트 위주의 기록화를 벗어나, 기록관은 일반인의 삶, 희망,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Zinn(1977)의 주장은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방법론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고 탐색되었다(Haas & Samuels, 1986; Hackman & Warnow-Blewett, 1987; Samuels, 1986).

하지만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종종 평가선별의 유사어로 이해되거나, 수집정책의 확장 정도로 인식되었다(Cox, 1989). 단순한 수집정책의 확장이 아닌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주제의 수집과 평가의 전반적 과정을 계획하게 하여 기록관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구적 수집활동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아키비스트가 기록화 과정에서 전략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기록관의 장서를 분석하고, 상세한 수집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며, 평가기준을 수립할 것을, 그리고 다른 지역 혹은 주제의 기록관 장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확보할 것을 명문화하는 작업은 기록관의 중요한 목표였다(Abraham, 1991).

5. 수집정책 사례 분석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향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담지와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아카이브의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수집정책 사례는 흔치 않았다. 기존의 아카이브들이 오프라인 수집물을 중심으로 하는 수집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디지털 아카이브들은 파편화된 수집의 범주와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문서화된 수집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 소재 ‘국립 9/11 박물관(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이 제공하는 ‘수집 운영 정책(Collection Management Policy)’의 경우, 오프라인 수집에 대해 28쪽에 걸쳐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디지털 보존 업무에 대해서 매우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다(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2011). 워싱턴D.C. 소재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은 명시화된 수집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수집물의 범주와 특성, 주제영역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오프라인 수집물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듯, 전통적 기억기관의 수집정책에서 디지털에 대한 대응 부족이 두드러지는 반면, 다수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수집정책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술기금과 대학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 ‘9/11 디지털 아카이브(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호주 원주민 커뮤니티의 문화사 보존과 접근을 위한 멀티미디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아라 이리티트자 프로젝트(Ara Irititja Project)’,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등 대부분의 디지털 아카이브들은 수집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사례의 주제 적합성, 형식 적합성과 함께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 대상 사례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이 그 선정 기준의 첫 번째 요소였다. 이외에도 '참여형 아카이브'인지,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합치하는, 즉 디지털 프로젝트이고, 참여형 아카이브이며,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되는 역사적 사건의 아카이브에서 수집정책을 가지고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선정요인에 근접한 사례들 중,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 기록관의 '팬암항공 103편/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Pan Am 103/Lockerbie Air Disaster archives)'와 필라델피아 기반 비영리조직의 '남아시아 이민자 디지털 아카이브(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추가로 디지털 아카이브만을 위한 체계적 수집정책 사례의 분석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산타바바라(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와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이 공동 구축한 '국가 지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National Geospatial Digital Archives)'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 지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영역의 적합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 수집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다음에서 본 연구는 각각의 주제적 특징과 디지털 아카이브이라는 형태적 특징이 분명히 구분되는 위 사

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활용할 기본 요소들을 논하고자 한다.

5.1 팬암항공 103편/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

팬암항공 103편/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이하 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는 1988년 12월 21일 영국 스코틀랜드 로커비 지역 상공을 비행 중이던 팬암(Pan Am) 항공 103편이 테러 집단에 의해 폭파되어 추락한 사건을 기록하며,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35명의 시라큐스대학 학생을 포함한 희생자 270명을 추모하기 위해 시라큐스대학이 주도한 아카이브 프로젝트다. 시라큐스대학은 첫째, 재난기록을 한 곳에 수집하여 그 자료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둘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를 기록하여 전 세계가 잊지 않도록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고 제공하고자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는 디지털 자료만을 수집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나, 구술기록이나 이용자 참여기록은 디지털로 제공하고 있다. 아카이브에 포함된 기록은 신문, 잡지의 스크랩, 사진, 재판에 관한 정보, 정부 문서, 책, 시청각 테이프, 포스터, 전시 자료, 희생자들에 관한 자료 등이다. 현재까지 총 270상자 이상 분량의 기록이 보존되고 있다. 기록의 연대는 대체로 1988년에 시작하나, 희생자 가족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더 이른 것도 있다. 대부분의 기록이 대학의 행정실, 유가족, 저자, 법조인, 동문 등에 의해 기증되었고,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개되어 있다.

수집의 범위는 '희생자 추모기록', '가족 활동 기록', '팬암 희생자단체(Victims of Pan Am Flight 103, 이하 VPAF103) 기록', '사건 이후 영향에 관한 기록' 등이다. 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는 총 8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희생자와 유가족 컬렉션', '시라큐스대학 컬렉션, 로커비 컬렉션', '단체/기관 컬렉션', '시청각 컬렉션', '출판물 컬렉션', '팬암 항공 103편 스토리 아카이브 컬렉션', '기타 컬렉션'이다.

이 중 유일하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팬암 항공 103편 스토리 아카이브 컬렉션'은 사건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활동의 하나로 2013년에 시작되었고,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희생자 270인에 대한 작은 기억들, 사건 직후의 상황, 사건이 남아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끼친 영향 등을 담고 있으며, 팬암 항공 103편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컬렉션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자료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기록 생산 및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술기록을 채록하기도 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글을 남기는 방식(written narrative)을 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기록은 디지털로 저장 및 제공된다. 이야기 채집의 대상자들은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 1988년 가을 학기에 시라큐스대학을 통해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던 동문들, 로커비 지역 시민들, 사건의 여파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아카이브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참여자 그룹에게 적합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Syracuse University, 2010b).

- 희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 그에 관해 가장 기억에 남는것이 무엇인가요?
- 그들에 대해 기억나는 일화는 무엇입니까?
- 이 사건이 1988년 이후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내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이 사건으로 귀하는 압력단체 활동, 법적 절차 등 진상규명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어떤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이유는?

수집정책의 전문은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8개 컬렉션 전체로서의 아카이브 수집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yracuse University, 2010b).

수집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I. 수집 범위'는 주제의 범위와 기록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 주제는 사건의 희생자들과 관련된 기록, 사건 이후 파장과 영향에 관한 기록이며, 사건조사팀, 입법관련자, 법조인, 저자, 기자, 방송제작자, 감독, 작곡가, 예술가, 정부단체들, 기관과 조직들,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의 수집을 명시한다. 'II. 수집정책'에는 수집 목적과 기록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시라큐스대학의 재학생 희생자 35인의 기록 수집으로 시작하였다가 2006년에 희생자 270인 모두로 수집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희생된 시라큐스 학생들을 추모하여 세상에 그들의 삶을 알리는 수집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수집 대상 기록은 지속적,

〈표 1〉 로커비 항공 재난 아카이브 수집정책 구성

구성	하위 분류	내용 및 세부 유형
I. 수집범위(Scope)		주제의 범위, 기록물 출처
II. 수집정책 정의(Policy)		수집정책에 대한 기본 정보: 수집의 목적, 기록화 대상, 형태의 범위
III. 수집 기록물 범주 (Categories of Materials)	A. 희생자 추모 기록	추모글, 추모식, 추모장학금; 신문기사 스크랩; 위로편지, 카드; 사망신고서; 서신, 엽서; 사진;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글, 시, 예술작품; 스크랩북; 수상내역; 개인적인 물품
	B. 희생자 가족 활동 기록	서신; 필름; 재판정보; 위원회 활동; 신문기사 스크랩; 글, 논문,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 의견서; 보고서
	C. 희생자단체 (VPAF103) 활동 기록	규약 및 부칙; 회의정보; 회의록, 회의 의제; 뉴스레터, 기타 출판물; 신문스크랩; 서신; 사진; 연간보고서, 위원회 보고서 등; 음성 녹음 및 영상 녹화; 회원 명단 및 주소록; 재무제표, 예산, 회계 보고서; 브로셔 및 팸플릿; 보도자료; 연설; 사안 철; 기념품
	D. 사건 이후의 영향에 관한 기록	법령; 정부 보고서; 법원판결 및 의견; 도서; 작곡; 시; 연극; 논문; 사기와 음모(수집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 또는 거짓 정보)

역사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구체적 예시로는 펜암 항공 103편의 역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운영, 활동, 절차에 관한 내용, 270인 희생자의 삶과 펜암 103편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 친구들의 삶, 테러사건의 사후 여파에 관련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료 등을 나열하였다. 또한 형태로는, 종이기록물에 국한하지 않고, 마이크로 필름, 사진, 그림, 지도, 이메일, 음성 메일, CD, DVD,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테이프, 디스크, 전자문서 등을 모두 포괄함을 밝히고 있다.

‘III. 수집범위’의 세부 범주들에는 각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기록물의 유형을 나열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희생자 추모기록’에는 추모글, 추모식, 추모장학금; 신문기사 스크랩; 위로편지, 카드; 사망신고서; 서신, 엽서; 사진;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글, 시, 예술작품; 스크랩북; 수상내역; 개인적인 물품 등이 열거되어 있고, ‘B 희생자 가족 활동 기록’에는 서신; 필름; 재판정보; 위원회 활동; 신문기사 스크랩; 글, 논문,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

의견서; 보고서 등이 나열되어 있다.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이라든가 디지털 형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는 이 장서가 온전히 디지털 자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장서처럼 시라큐스대학의 기존 기록관의 정책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은 대학의 기존 수집정책과 같이 병기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책 운영 권한에 대한 내용은 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 자체 수집정책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시라큐스대학의 기존 기록관과 문서관의 수집정책에는 정책의 운영권한이 대학 기록관과 문서관에 있음이 나타나 있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나 기록물 공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각 컬렉션의 검색도구에는 “본 컬렉션의 기록물 중 인용, 발췌, 혹은 이미지를 출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와 각각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5.2 남아시아 이민자 디지털 아카이브

남아시아 이민자 디지털 아카이브(이하 SAADA)는 미국 내, 그리고 전세계의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설립되었다. 아카이브는 필라델피아에 근거한 비영리단체로, 어떤 기관이나 대학에 속한 장서의 일부로 구성된 디지털 아카이브가 아닌, 독자적 디지털 아카이브로 설립되었다. SAADA는 미국 및 세계 역사에서 여러 민족들과 이민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이해하고, 이민자 공동체의 기록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화와 토론의 역동적 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이 정의하는 남아시아 이민자들은 전세계의 방글라데시, 부탄, 인디아, 말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및 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민자들을 포괄한다. SAADA는 2008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 남아시아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2,584개의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SAADA, 2015a).

SAADA는 디지털 형태로만 운영되며, 별도의 오프라인 수장고나 아카이브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기증되는 기록물 중 실물로서의 자료들은 개인이나 타 아카이브 기관에 보존된다

(SAADA, 2015b). 아카이브는 간결한 수집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수집활동에 대한 큰 그림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수집 범위, 이용자 정의, 장서 단위(우선 순위와 한계), 개정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SAADA는 “미국에 있는 남아시아 이민자들의 고유하고 다양한 경험을 내포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 통합적인 사회를 건설”함을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SAADA, 2015a). 다만, 이 사명문은 수집정책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이 사명문에 따라, SAADA는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남아시아 이민자들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담지하는 현용 및 역사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수집정책에 밝히고 있다.

SAADA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기록물을 수집한다. 여기에는 문서, 신문, 사진, 오디오, 비디오 자료, 구술자료, 팸플렛, 웹사이트 및 디지털 파일들이 포함된다. 내용적으로는 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로부터 온 이민자들과 그들의 유산을 전승하는 후손들의 역사를 포함한다. 수집의

〈표 2〉 남아시아 이민자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구성

수집정책 구성	내용
사명(Mission)	미국 남아시아 이민자의 경험, 기억의 기록, 보존, 공유
수집범위(Scope of Materials)	기록물의 주제 및 형태에 관한 정의
이용자(Patron Community)	이용자 그룹의 예시를 명시
수집 단위/ 우선권 및 한계 (Collection Units/ Priorities and Limitation)	기록물의 시기, 중심 사건, 중요한 기관, 매체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 수집정책에 맞지 않는 기증은 철회될 수 있음을 밝힘.
개정절차(Procedure for Review)	수집정책의 개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시기를 명시

방식은 수집과 기증으로, 기록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카이브로 직접 연락하게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억을 입력하게 하거나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게 하는 형식의 참여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SAADA는 다양한 공동체의 정보요구를 가지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공동체의 예시로, 학술연구자, 남아시아 이민자들의 후손들, 관심있는 지역주민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일반 시민 등을 나열하였다.

수집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우선순위를 갖는 기록물로는 1965년 이전의 이민자와 방문지에 관한 기록물, 벨링햄 폭동(Bellingham Riots),¹⁾ 남아시아 이민자들의 정치 활동 및 사회운동 관련 기록, 전문가 협회 및 노동관련 기관, 지역 공동체 및 기관, 종교 기관, 공동체 신문, 학생 조직, 남아시아 이민자 출신의 유명 예술가, 영화제작자, 작가, 음악가 등 지식인의 기록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증된 자료는 SAADA가 정한 수집정책에 의거 평가될 것임도 명시하고 있으며, SAADA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수집정책이 매년 심사, 개정, 승인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5.3 국가 지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국가 지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이하 NGDA)는 UCSB와 스탠포드 대학이 주축이 되어 수행한 프로젝트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국가 전자정보 기반구축 및 보존 프로그램(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 혹은 NDIIP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프로젝트로 지리정보 데이터와 이미지의 범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려는 노력이다(Erwin, Sweetkind-Singer, & Larsgaard, 2009). 이 프로젝트는 두 대학의 기존 역사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2008년 당시 UCSB가 제작 중이던 지리정보 데이터를 그 기본 장서로 삼아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a) 지리정보 데이터와 이미지를 위한 범국가 통합 네트워크 구축, (b) 디지털 아카이브의 백업과 매체전환 등을 고려하는 통합 아카이브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검토, (c) 위기에 처한 주요 지리정보 데이터와 이미지의 수집과 보존, (d) 디지털 지리정보 조직의 모범 사례 개발, (e) 프로젝트 파트너 기관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메카니즘 개발, (f) 디지털 자료의 보존연한, 저작권, 교환 등에 관련된 각종 정책 마련이다.

목적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NGDA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지털 기록의 수집과 저장에 그치지 않았다. 기술적 특수성과 복잡성을 지니는 지리정보의 적합한 조직과 개발이라는 목표와 함께, 소유권, 접근권, 저작권 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방대한 규모의 지리정보,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적 요인, 대규모 연구기관부터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데이터까지를 망라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임무,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지리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사명 등이 수집정책에 고려되었다.

UCSB와 스탠포드 대학이 종이 기록물에 적용하는 기존 수집정책과 NGDA의 수집정책을

1) 1907년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400여명의 백인들이 목재공장에서 일하는 남인도인들의 집을 공격하고 약탈과 폭행을 자행했던 사건이다

비교했을 때, 수집범위, 주제와 지리적 영역 등은 거의 일치한다. 차이점으로는 예상 이용자의 범위를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여 아카이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잠재적 이용자로 규정한 점, 그리고 형태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메타데이터, 파일포맷, 버저닝, 각기 다른 시스템의 포맷,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킨 점 등을 들 수 있다.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는 <표 3>과 같다(NGDA, 2006).

NGDA 수집정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수집 목적과 이용자 정의'는 미국 디지털 지리정보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함인

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1차 이용자를 현재와 미래의 미국 시민으로, 2차 이용자를 웹 공간의 모든 이용자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이용자 그룹은 학술연구자, 초중고의 학생들과 교사, 지도 및 지리 이미지 제작관련자, 비영리 단체 등의 예를 들어 구분하였다.

'II. 선별, 평가, 우선순위'는 수집을 위한 기록 확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단체에 존재하는 지리정보의 확인을 위한 과정과 선정 절차를 명시한다. GIS4lib, Maps-L 등의 지리정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해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상

<표 3> 국가지리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구성

구성	하위 분류	내용 및 세부 유형
I. 수집목적과 이용자 정의(Collection Purpose and Description of Users)		미국 디지털 지리정보 데이터의 포괄적 수집 1차 이용자: 현재와 미래의 미국 시민 2차 이용자: 웹 공간은 모든 이용자
II. 선별, 평가, 우선순위(Selection, Evaluation, and Prioritization)		수집을 위한 기록 확인 과정 및 선정절차
III. 수집 범위(Scope of Coverage)	A. 지리	미국의 전체, 각 주, 카운티, 시, 미국의 해양 등으로 규정 가능
	B. 주제	자연지리학, 인문문화지리학, 위성영상
	C. 날짜	연대별, 버전별 지리정보
	D. 포맷	오픈소스 데이터, 시스템별 상이한 포맷의 수집에 관한 결정
	E. 언어	영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나, 지리정보 일부에 다른 언어가 있을 수 있음도 고려
	F. 저작권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
	G. 수집제한 자료	지리정보가 포함된 역사자료, 아날로그자료, 통계자료, 미국이외의 지역 등은 제외
IV. 메타데이터 권고안(Metadata Recommendations)		주요 메타데이터: 지역명, 내용의 유형, 파일 포맷, 지도 투영 및 좌표 시스템, 저장매체, 제목, 정보기입 날짜, 출판(제작) 정보, 데이터의 질적 수준, 저작권 정보, 아카이브에 저장(ingest)된 날짜, 컬렉션 제목과 날짜, 주제어 (통제어), 기타
V. 디지털 지리정보의 출처(Sources for Digital Geospatial Data)		정부기관(1순위), 기업(2위), 개인(3위)
VI. 협력활동(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Collections)		협력 수집 협약서, 교점기관 협정서
VII. 부록(Appendices)		교점기관 수집정책 참고노트, 용어집, 장서평가용 수집총실도, 참고문헌과 부가정보

업적으로 제작된 제품의 수집을 고려할 수 있을
을 예로 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자료는 수집영
역과의 대조라든가, 우선 순위를 매기는 몇 가지
선별기준에 의해 수집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III. 수집영역의 범위’는 수집대상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A 지
리’ 범위로는 특정 주(state), 일정 지역, 카운티
(county), 시(city) 등 수집 대상인 지리적 영
역을 설명하면서 이들 지역에 집중한 지리정보
데이터를 수집함을 예시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 외에도 ‘B 주제’ 혹은 ‘C 날짜’의
적용범위도 상세한 예시와 함께 의미를 설명하
고 있다. 특히 ‘D 포맷’ 항목은 디지털 자료만의
수집 원칙,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표준
데이터 및 오픈 소스 프로그램 데이터의 우선
수집 원칙 등을 명시한다. 특정 시스템에 종속
되어 운영해야 하는 데이터세트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픈 포맷은
아니지만 ‘ESRI shapefile’와 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파일 포맷 또는 글로벌 디지털
포맷 등록소(Global Digital Format Registry)
에 수록될 지리정보 등은 수집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F 저작권’
항목은 저작권 없는 공공영역 자료의 우선 수집
원칙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료의 경우,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수집할 것과 저작권자와의 협상과
정에서 특정 자료를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G 수집제한
자료’는 수집 제외 대상을 밝히고 있다. 지리 역
사에 대한 아날로그 자료, 지리적 영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계자료, 외국 자료, 웹사이트의
HTML 자료 등을 포함한 지리정보의 참고원

들은 수집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NGDA 수집정책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IV. 메타데이터 권고안’이다. 디지털 자료의 특
성상, 특히 이미징 디지털화가 아닌, 데이터베
이스의 형태로 수집하는 자료의 경우 수집과 동
시에 메타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수집시에 함께 저장해야 할 메타데
이터 요소를 나열함으로써, 지리정보 활용의 유
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함께 수집해야 하는
중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지역명, 내용의 유형,
파일 포맷, 지도 투영 및 좌표 시스템, 저장매체,
제목, 정보기입 날짜, 출판(제작) 정보, 데이터
의 질적 수준, 저작권 정보, 아카이브에 저장
(ingest)된 날짜, 컬렉션 제목과 날짜, 주제어
(통제어),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V. 디지털 지리정보 출처’는 정부 생산
자료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기관의 데이터에만 제한하지 않고, 디지털
지리정보를 제작하는 개인이나 기관까지를 포
함시키고 있다. 출처는 어떤 주제든 미국을 포
괄하는 지리정보의 제작원이다. 일반적으로 모
든 수준의 연방정부와 함께, 전문가협회나 환
경전문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첫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 출처다. 그 다음으로 영리 기
업이고, 세번째 우선 순위가 개인이라고 명시
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은 ‘VI. 협력활동’에서
규정하고 있다. NGDA의 핵심 사명이 수집 네
트워크 구축이기에, 협력 수집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협력 기관 및 수집 범위에
포함되는 주체들과 협력 수집 협약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에는 협력 수집 영
역, 데이터세트의 업데이트 및 버전 개발의 빈

도, 협력 기간, 수집 기록의 접근 방식 및 수준, 협약서의 갱신 주기, 용어 정의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용어사전과 관련 정보 및 링크 등을 첨부하고 있다.

수집정책 승인 이후, UCSB와 스탠포드 대학은 NGDA의 교점(node)으로, 이 수집정책에서 파생된 각각의 교점 수집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두 기관의 교점 수집정책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이 달라졌을 뿐, 그 근간은 기본 수집정책과 대동소이하다. 추가된 내용의 예로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대상 이용자 정의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UCSB와 스탠포드 대학 두 곳만이 교점 기관이나, 향후 교점 기관은 추가될 수 있다. 교점 기관 간에 체결해야 하는 협정서에는 교점기관 간의 업무절차, 결정권한, 책임과 의무 조항, 운영 구조, 협정서의 개정 절차, 라이선스가 있는 자료의 활용 방안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NGDA, 2007).

5.4 소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기록을 사명으로 한 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의 수집 영역 및 범주 설정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넘어, 사건에 관련된 폭넓고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의 기억과 기록을 담아내고,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로커비 항공 재난 아카이브는 사건과 희생자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추모 기록과 희생자가족 및 단체의 활동기록, 그리고 사건 이후의 영향에 관한 기록까지를 담고자 했다. 사건의 직간접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록과 기억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아카이브가 모두 처음부터 망라적 수집에 나섰던 것은 아니다. 현재 보여지는 포괄적 수집은 아카이브의 역량에 맞는 수집정책의 개발과 이에 따른 수집 범주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증 및 수집활동에 있어 관련 개인과 집단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노력과 배려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SAADA는 비영리 민간조직에 의해 수립된 독자적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공동체의 기록자이자 소통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다는 점에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와 매우 유사한 지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명확한 수집정책 운영과 정기적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수립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NGDA는 가장 상세하고 명확한 수집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집영역이나 선별평가의 우선 순위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권고안과 교점기관 간 협정서에 대한 규정들이 그 예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형태와 방식의 차이만큼이나 수집정책의 내용과 구성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 사례의 항목을 나열해 보면, '수집정책', '수집범위/영역/범주', '사명', '수집 참여그룹', '수집방법', '개인정보보호', '저작권자료의 보호 및 접근', '수집 목적', '이용자 정의', '선별, 평가, 우선순위', '메타데이터 권고안', '협력활동', '개정절차' 등으로, 이를 상호 유사 요소로 묶어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분석 대상 사례의 수집정책 요소 비교

로커비 항공재난 아카이브	SAADA	국가지리정보 아카이브
수집정책 정의	사명 이용자	수집 목적 이용자 정의
수집 범위 수집 기록물의 범주	수집 범위	수집 범위
-	수집우선순위	선별, 평가, 우선 순위
-	개정절차	메타데이터 권고안 디지털 지리정보의 출처 협력활동

가장 공통적으로 등장한 요소는 아카이브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사명과 목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집활동을 가이드하는 수집의 영역, 범위, 범주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아카이브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요소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의 필수 구성요소를 ‘사명 기술(수집 목적)’, ‘수집범위와 대상’, ‘대상이용자 정의’로 삼고, ‘수집방법 및 절차’와 ‘저작권자료의 보호 및 접근’을 포함한 기타 사항을 부가적 구성요소로 고려하고자 한다.

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6.1 수집정책의 구성 요소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사건이다.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가까이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사건은 1999년 미국 AP 보도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미 양국 정부와 언론, 학계, 문화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노근리의 기억은 다양한 분야의 관심으로 다각도로 환기되고 있다.

현재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공개프로그램인 오메카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상태다. 시스템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미군 문서와 AP 기사 등 연구진의 선행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근리사건 기록의 제한된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에 현단계의 본격적 자료 수집을 위해 아카이브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집의 범위와 절차를 분명히 정의하여야 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특정 기관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 노근리사건의 성격과 기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수집정책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목적, 사명, 기존 자료의 특성과 내용, 법적 의무와 절차, 수집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자체적인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적법한 수집을 위해 비영리 학술연구 프로젝트로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이용자가 참여하여 제공하는 내용의 법적 권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근리사건은 피해 당사자들이 일부 생존해 있고, 평화박물관, 유족회, 평화재단 등의 형태로 당사자들의 모임과 활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원칙에 맞추어, 노근리 커뮤니티와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내용은 수집정책에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은 노근리 현장과 평화공원, 유족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간의 기록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근리 커뮤니티의 주축인 정구도 평화재단 이사장과 수많은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비극적 사건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참여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사자 커뮤니티와 연구팀 간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와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외부인 시각으로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 커뮤니티의 아픈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awell, 2014). 대다수 연구자들은 참여형 아카이브의 경우, 연구팀 혹은 기록인들이 기록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커뮤니티가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는 형식을 이상적 협력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많은 디지털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협력 방식을 현장에 채택하고 있다(Stevens et al., 2010; Wakimoto, Bruce, & Patridge, 2013). 본 연구팀의 경우도 커뮤니티로부터 노근리 사건에 대한 내용의 전문성을 기대하는 방식을 기본적 틀로 삼았다. 이외의 인터뷰의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사항 역시 커뮤니티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집정책은 노근리 커뮤니티와의 그 간의 협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음에서는 앞서의 사

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수집정책의 요소에 맞춰,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를 논하고자 한다. 수집정책에 포함될 요소는 아카이브의 목적을 규명하는 '사명 기술'과 '대상 이용자 정의', '수집 범위와 대상', '수집 절차', '저작권 및 기타 결정사항'이다.

6.1.1 사명기술과 대상 이용자 정의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적은 노근리사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자료의 한계를 넘어, 노근리의 경험과 기억을 포괄하는 증언과 자료를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공식 문서에 실리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의 경험을 수록하는 것이다. 둘째, 노근리의 경험과 기억이 관련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여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 삶들의 전체로서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관찰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셋째,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향후 변화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환경에서 노근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으로 마련된 아카이브는 잠재적인 모든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가 이용자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노근리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 학술연구자, 기자, 학생, 문화 예술관련 종사자, 일반인 등이 포함된다.

6.1.2 수집범위와 대상

현재 노근리의 기록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노근리 평화공원

박물관 수장고에 노근리를 세상에 알리게 한 주요 인물인 고 정은용과 그의 아들인 정구도²⁾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비록 정리되지도 않았고, 보존상태 또한 좋지 않았지만, 이들 가족은 노근리사건의 공론화를 위해 노력한 수십년간의 기록들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상황은 조금 다르다. 노근리 기록은 온라인 어디에도 통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동군에서 구축한 ‘노근리 디지털 자료관(<http://archive.nogunri.net>)’에는 다량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 대부분의 기록들이 매우 간소하게 목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용이 비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 활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영동군의 디지털 자료관은 일회적인 프로젝트로 마련된 공간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 추가 기록의 저장 등의 활동은 거의 없다. 디지털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한 기록의 총량과 통합 목록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양한 노근리사건 기록과 기억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구자는 물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2015년 초부터 약 1년 6개월 간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은 노근리 평화박물관을 방문하여, 정은용, 정구도의 자료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존 언론보도 및 학술논문 등 노근리사건의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다룬 대다수의 2차 자료가 이 가족이 취합한

노근리의 기억과 기록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외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은용, 정구도의 기록이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생자 개개인의 기록과 그 기록으로부터 파생된 기록이 본격적으로 생산, 수집된 것은 1999년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의 진상규명조사 활동 이후다. 이에 연구팀은 노근리 커뮤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노근리 기록의 수집 정리 활동을 정은용, 정구도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언론보도, 정부조사, 시민단체 연계활동, 문화예술활동, 학술연구 등으로 확장되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화 전략을 제안한 김유승, 류반디(2015)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은 시기별로 내용적 특성과 장르적 상이점을 보인다. 제1기는 노근리사건 발생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에 이르는 반기역의 시기다. 사회로부터 부정당했던 사건의 진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생산, 수집한 기록이 이 기간을 대표하는 기록물의 범주를 구성한다. 주요 기록으로는 각종 소청 및 진정 관련 문서, 사건을 경험한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작성한 기록물, 사건을 뒷받침하는 학술문헌, 당시 신문, 군사문서 등이 있다. 제2기는 1999년 대대적 언론보도로부터 2004년 ‘노근리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건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민간, 정부 간의 활동 시기로 하나의 기록 범주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사건을 보도한 신문 및

2) 그는 현재 노근리 평화공원의 관리주체인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의 이사장이며, 노근리 박물관의 관장이다.

방송 기사, AP의 노근리 특집 웹사이트,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진정서, 탄원서, 학술 연구 출판물, 한미 양국 정부의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시민단체 연계활동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된다. 제3기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노근리사건이 사회문화적으로 확장되고, 추모 활동과 기억의 재생산과정을 거치는 시기다. 이 시기 기록으로는 노근리 평화인권재단과 평화공원을 기반으로 실시된 행사 기록 및 출판물, 노근리를 주제로 한 문학과 사진, 음악 등 예술 작품,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 심사 관련 정부 문서 및 보고서, 희생자들의 탄원서 등이 있다(김유승, 류반디, 2015; 윤은하, 김유승, 2016).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1999년의 사건기록, 1999년~2004년의 진상규명활동기록, 2004년 이후의 추모기록 등 3가지 범주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내용적 수집 범위가 될 것이다.

기록의 출처는 사건의 공론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정은용, 정구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노근리 평화공원, 영동군, 언론기관 및 언론인, 연구자, 시민단체 등 노근리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기록을 생산한 모든 주체들을 포함한다. 또한 노근리의 기억을 수집하고 사회적 이해와 다양한 해석의 맥락을 담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자발적 참여자와 기증자들 역시 수동적 수집대상에 포함된다. 기록과 기억의 출처는 내국인에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이미 미군문서와 당시 미국 AP의 기사들, 당시 웹사이트 등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제공되고 있다.

6.1.3 수집 절차

수집은 디지털 기록으로 기증받거나, 실물을 대여받아 디지털 변환 후 반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물리적인 형태의 기록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디지털 변환 후 아카이브에 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이라면 그 형태에 상관없이 수집한다. 또한 노근리의 기록 중 문자화 된 기록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노근리 경험과 노근리 이후 희생자 가족들의 삶을 수집하기 위해 구술기록을 채록할 예정이다. 따라서 구술기록의 수집 및 생산에 대한 규정 역시 수집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술기록을 포함한 노근리의 기록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시기에 집중 수집하고, 그 이후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억의 수집 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 수집의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집정책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아카이브의 시스템은 이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집정책에는 이용자의 참여에 대한 내용적 범위, 타당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구술 채록 및 이용자참여기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술기록대상자 및 기억의 공유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심리적,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 비극적인 사건을 되새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억을 남기고 구술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담과 압력이 없으며, 온전히 참가자들의 자발에 의한 채록이어야 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시 즉시 중단해야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제공한 내용에 대한 법적, 절차적 권한과 한계 역시 수집정책에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6.1.4 저작권 및 기타 결정 사항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을 오로지 디지털의 형태로만 저장,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로 복제, 전송, 배포의 경우 저작권의 침해 받을 수 있는 기록보다는 저작권이 없는 공공영역의 기록 수집을 우선 순위로 한다. 이는 앞서 로커비 항공제난 아카이브가 보여준 저작권 적용 기록의 관리 방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록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이의 원활한 공익적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기록의 경우 사례별로 협의해 수집할 수 있다. 본 아카이브는 노근리 유족회와 노근리 평화공원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노근리사건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데 주요 역할

을 한 미국 AP사로부터 당시 기사와 특집 웹사이트의 활용 허락을 얻은 바 있다.

아카이브는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이용자의 참여 기록의 경우, 이용자에게 분명한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향후 다른 기관과의 협력, 혹은 자료 공유에 대한 내용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당장 구체적 협력 내용은 정할 수 없더라도, 협력 방안 및 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은 수집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6.2 수집정책 초안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초안은 다음과 같다.

I. 사명

A. 목적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서, 영상, 음성, 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의 중요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디지털화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는 망라적 기록을 선별, 수집, 정리, 디지털화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시민, 학생,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제한없이 제공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건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화 과정을 밝히는 개방형, 참여형 아카이브를 지향한다.

B. 이용자 정의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온라인으로 본 아카이브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를 이용자로 규정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은 노근리 희생자와 가족, 학술 연구자, 초·중등학교 학생과 교사,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노근리 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을 포함한다.

II. 수집절차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실물로서 기록을 수집하지 않고, 디지털 기록만을 보존한다. 이에 수집된 기록은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보존 및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근리에 관련된 많은 기록 중 영속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자료만을 선정한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의 디지털 변화 후 수집, 구술기록의 수집, 이용자 참여 기록의 수집 등 제반 수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디지털 변환 후 수집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잠재 기증자들을 찾아 기록을 대여받아 디지털 변환 후 반납한다.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 언론보도, 학술논문, 문학예술작품 등을 생산한 기관 또는 개인을 잠재 기증자로 간주하고, 이들로부터 기록의 수집과 디지털 변환을 협의한다. 모든 협의 후에는 기록 대여 방식 및 기간, 디지털 변환 파일의 공개 및 활용 여부에 대한 아카이브와 기증자 간의 동의 사항을 서면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별첨 1〉 참조). 디지털 변환은 스캐너를 이용한 디지털 스캔,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 및 디지털 영상 제작, 디지털 음원 변환 등 온라인으로 전시 상영 가능한 형태의 포맷 전환을 의미한다.

B. 구술기록의 수집

노근리사건의 경험과 기억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노근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기록을 수집한다. 구술기록의 대상은 노근리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피해자 및 유가족, 노근리사건 연구자, 노근리사건 보도에 참여한 언론인, 노근리사건 공론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시민단체, 노근리사건을 조사한 정부 조사팀, 노근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활동의 주체 등을 포함한다. 구술을 채록할 때, 비극적인 사건을 환기시키는 경향이 되므로 반드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동의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구술채록 동의서를 반드시 제시하고 서명을 받는다(〈별첨 2〉 참조).

C. 이용자 참여 기록의 수집

노근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자신의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기억과 기록은 다시 노근리를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이용자의 삶에 새로운 기억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반복적이고 변증적인 과정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존될 것이다. 이용자 참여 기록은 정기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 아카이브의 기록으로 채택하며, 메타데이터 등 조직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를 통해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가 제공하는 내용에 대한 법적 권한, 저장된 내용을 이용할 경우의 법적 제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이용자들은 참여 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참여 약관은 〈별첨 3〉과 같다. 적절하지 못하거나 노근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아카이브 연구팀이 삭제할 수 있다.

III. 기록의 출처

노근리평화공원 내 박물관에 소장된 정은용, 정구도가 남기고 수집한 기록을 기초로 하여 자료로 수집한다. 그러나 수집 범위는 평화공원 박물관 자료에 한정하지 않는다. 평화공원에 수집되어 있는 노근리의 역사와 진상규명 과정에 관한 기록을 기초로, 노근리사건의 직접 관련자인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이 생산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수집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 정부,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노근리사건 조사활동,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고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도 기록의 출처로 고려하여 수집한다. 소설가, 만화가, 영화제작자, 예술가 등 노근리의 사회문화적 치유 과정에서 기억의 생산과 재생산에 참여한 주체 역시 기록의 출처로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국적을 불문한, 모든 시민들 역시 포함된다.

IV. 수집범위

A. 내용적 범위

아카이브에서 수집하는 기록은 반드시 지속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한정한다. 기록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a. 1999년 AP에 의해 사건이 보도되기 이전,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했던 활동을 기록하는 내용 (예: 진정서, 청원서, 문학작품 활동, 언론사 정보제공활동, 유가족회/사건대책위 활동 등)
- b. 1999년 AP 보도 이후 2004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는 내용 (예: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노근리 공론화 과정의 신문 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사건대책위의 미국소송 활동, 관련 학술논문 등)
- c. 2004년 특별법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평화공원을 주축으로 하는 추모 활동, 사회문화적으로 재생산되는 노근리 기억, 피해자 배상을 포함하는 희생자 명예회복심사 활동, 사건 재조사 촉구활동 등을 기록하는 내용 (예: 학술문화제, 위령제, 세계대학생 인권캠프 등 노근리 평화공원 활동 기록, 노근리 평화공원 출판물, 노근리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출판물, 노근리를 주제로 한 영화, 소설, 만화, 사진 등)
- d. 노근리의 역사,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기록 및 문화 예술 작품들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노근리의 기억과 이해 (예: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증하는 이용자들의 기록)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록은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디지털 변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수집한다.

B. 우선 수집 대상

기록의 내용적, 형태적 특징이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 수집 대상이 된다.

- a. 노근리의 기억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매체 (예: 문화예술 활동,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록, 관련 법률 등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
- b. 형식적, 구조적, 내용적 특이성 (예: 멀티미디어, 온라인 패키지, 희생자의 자필 문서 등)
- c. 노근리사건의 주류 기록에서 소외된 주체의 기록 (예: 각각의 개별 생존자 기록, 노근리 진상조사과정 중 소외된 기록 등)
- d. 사건의 한 단면을 다양한 형태와 관점으로 조명하는 기록 (예: 같은 내용을 여러 주체가 기록한 경우, 문서와 그 내용을 묘사하는 사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등)

V. 저작권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저작권이 없는 공공영역의 기록 수집을 우선으로 한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개별적인 협의와 허가를 거쳐 수집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 자료를 일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크아카이브(보존용 비공개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온전히 보존용으로만 수집하지는 않는다.

VI. 협력 및 기록 공유 정책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와 목적이나 내용, 지향을 공유하는 많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협력한다. 협력의 범위나 내용은 협력 아카이브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력의 사례로, 아카이브에 저장된 기록의 공유, 협력적 온라인 전시, 아카이브의 지속성을 위한 학술활동,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VII. 의사결정

수집정책 및 선별의 결정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 전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기록 수집과 평가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나 자문의 강제성은 없다.

7. 맺는 글

수집정책은 아카이브의 나침반이다. 수집정책은 아카이브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며, 수립된 수집정책은 기관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 기본적 지침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집정책의 수립은 성공적 아카이브를 이끄는 첫 걸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카이브 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닌 올바른 수집정책의 수립은 지난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국내의 기록관들이 수집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은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은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표를 지지해줄 수집정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고 다각적으로 논의해왔다. 연구팀은 수집정책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 그리고 노근리 사건의 특성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환경적, 구조적 특성을 집단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고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앞서 제시한 수집정책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것이 완성은 아니다. 이제 겨우 작은 디딤돌 하나를 놓았을 뿐이다. 현장에서의 검증을 통해, 지속적인 집단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수집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사회적 기억과 기록을 담아내고자 하는 모든 아카이브의 수집정책 연구에 작은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 이승휘 (2015).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6, 233-286.
- 구분윤 (2009).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수진, 정은경 (20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109-124.
- 김유승, 류반디 (201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노시훈 (2011). 광역 문화자원의 수집과 기록: 아시아 목화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8, 123-153.
- 오명진 (2012).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이숙경 (2007). 대통령기록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운영방안. 제7회 기록관리연구회 자료집.
-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 (2015).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37-164.
- 이정희 (2009).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5-32.
- 장윤이 (2014). 인천의 근현대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법 연구. 인천학연구, 20, 147-192.
- 장윤희 (2005). 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23-46.
- 정은진 (2011). 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9, 35-78.
- 조용성 (2010).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233-278.
- 한수연 (2005).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Abraham, T. (1991).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The American Archivist*, 54, 44-52.
- Anderson, J. (1985). Managing Change and Chance: Collecting Policies in Social History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48(3), 296-303.
- Caswell, M. (2014).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s: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07-322.
- Contnet Innovations (2009). Report to National Geospatial Digital Archive Regarding Geospatial Data Treatment in Data Format Registry Efforts.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ngda.org/docs/CINGDAfindingspub121509.pdf>
- Cox, R. J. (1989).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The American Archivist*, 52, 192-200.
- Cramer, Tom (2009). The Stanford Digital Repository: Lessons Learned-A Report for NDIIPP.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ngda.org/docs/SDRLessonsInPreservation.pdf>
- Endelman, J. (1987). Looking Backward to Plan for the Future: Collection Analysis for Manuscript Repositories. *The American Archivist*, 50(3), 340-355.
- Erwin, T., Sweetkind-Singer, J., & Larsgaard, M. L. (2009). The National Geospatial Digital Archives--Collection Development: Lessons Learned. *Library Trends*, 57(3), 490-515.
- Grabowski, J. (1985). Fragments or Components: Theme Collections in a Local Setting. *The American Archivist*, 48(3), 304-314.
- Haas, J. K. & Samuels, H. W. (1986). The MIT Appraisal Project and Its Broader Implic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49, 310-314.
- Hackman, L. J. & Warnow-Blewett, J. (1987).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 and a Case Study. *The American Archivist*, 50(1), 12-47.
- Ham, F. G. (1975). The Archival Edge. *The American Archivist*, 38(1), 5-13.
- Henry, L. J. (1980). Collecting Policies of Special-Subject Repositories. *The American Archivist*, 43(1), 57-63.
- Janée, Greg, Sweetkind-Singer, Julie, & Moore, Terry (2009).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Geospatial Digital Archive (NGDA) and Federated Archive Cyberinfrastructure Testbed (FACIT) Projects.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ngda.org/docs/ngda-final-report.pdf>
- Kennedy, J. (2005).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54(3), 238-244.
- Momryk, M. (2001). "National Significance":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Acquisition Strategies in the Manuscript Division,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rchivaria*, 52(1), 151-174.
-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2011).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911memorial.org/sites/all/files/2013_CollectionsPolicy_0.pdf
- NDGA (2007).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ational Geospatial Digital Archive: Node, Branner Earth Science Library and Map Collections (Branner), Stanford University.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ngda.org/docs/SU_CDP_5_07.pdf
- NGDA (2006).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the National Geospatial Digital Archive (Final Version).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ngda.org/docs/NGDA_Collection_Development_Policy.pdf
- NISO Framework Working Group (2007). A Framework of Guidance for Building Good Digital Collections. Baltimore, MD: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NISO).
- Phillips, F. (1984).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The American Archivist*, 47(1), 30-42.
- Phillips, F. (1995). Congressional Paper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The American Archivist*, 58, 258-269.
- Reed-Scott, J. (1984). Collection Management Strategies for Archivists. *The American Archivist*, 47(1), 23-29.
- SAADA (2015a). About. August 11, 2016, from <https://www.saada.org/about>
- SAADA (2015b). FAQ. August 11, 2016, from <https://www.saada.org/faq>
- Samuels, H. W. (1986). Who Controls the Past. *The American Archivist*, 49, 109-124.
- Sauer, C. K. (2001). Doing the Best We Can? The Use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 Cooperative Collecting Activities at Manuscript Repositories. *The American Archivist*, 64, 308-349.
- Smyth, E. B. (1999). A Practical Approach To Writing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Rare Books & Manuscripts Librarianship*, 14(1), 27-31.
- Stevens, M., Flinn, A., & Shepherd, E. (2010).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s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 59-76.
- Syracuse University (2010a). Pan Am Flight 103/Lockerbie Air Disaster Archives at Syracuse University Collection Policy.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archives.syr.edu/panam/policy_pa103_collection.pdf
- Syracuse University (2010b). The Pan Am Flight 103 Story Archives Collection: Written Narratives. Retrieved July 10, 2016, from http://archives.syr.edu/panam/story_archives/wn.html
- Terranova, T. (2000). Free Labor: Producing Culture for the Digital Economy. *Social Text*, 18(2), 34-58.
- Wakimoto, D., Bruce, C., & Patridge, H. (2013). Archivist as Activist: Lessons from Three Queer Community Archives in California. *Archival Science*, 13(4), 293-316.
- Zinn, H. (1977).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Midwestern Archivist*, 2(2), 14-2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ung-Sung (2010).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233-278.
- Han, Soo-Yeon (2005). A Study on the Components of Archival Collection Policy. M.A.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Ewha University.
- Jang, Yun-Hee (2005).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University Archives: A Case Study of Hanshin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1), 23-46.
- Jang, Yuni (2014).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Digital Archives of Modern archives in Incheon.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20, 147-192.
- Jung, Eun Jin (2011). A Study on the Acquisition Methods of Theater Collec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9, 35-78.
- Kang, Min-Jung & Lee, Seung-Hwi (2015).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Presidential

- Libraries and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233-286.
- Kim, Jihyun (2014). An Analysis of Policies on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Provincial Archives in the U. S.,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3), 105-126.
- Kim, Su Jin & Chung, Eunkyung (2012). Toward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109-124.
- Kim, You-seung & Ryu, Ban-Dee (2015). A Study on the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No-Gun Ri Massacre Documentation Strateg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4), 173-194.
- Ku, Bon-Yun (2009).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Presidential Archives. M.A. Dissertation.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Eunjin, Lee, Yujin, & Youn, Eunha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Acquisition Policy for Young-nak Church's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2), 137-164.
- Lee, Jung-Hee (2009). A Study on the Acquisition Policy of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Manuscrip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1), 5-32.
- Lee, Sook-Kyoung (2007). A Operational Plan and Case Studies of Presidential Archives'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s. 7th Records Management Study Group Semina.
- Noh, Shi-Hun (2011). A Collecting and Record of Wide Area Cultural Resources: the Case of Asian Cotton Cultural Resourc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8, 123-153.
- Oh, Myung-Jin (2012).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Contemporary Histroical Events: with a focus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of 2004.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Youn, Eunha & Kim, You-seung (2016). Understanding No Gun Ri Record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emo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2), 57-79.

[별첨 1] 기록물 대여 동의서(Terms and Services for Records Rental)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귀하가 대여해주신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활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카이브에 수록된 자료에는 다른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인용표시를 안내하여 원저작자 및 대여자에 대한 크레딧(credit)을 부여합니다. 단,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의 대여 허락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대여해주신 자료로 제작된 디지털 기록의 영구적 사용, 배포 및 공중송신에 관한 권리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으며, 모든 미디어에서 사용, 배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귀하가 대여해주신 자료로 제작된 디지털 기록은 온라인에 공개되어 게시되며,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적 이용, 공정이용, 공익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로부터의 기록 대여 기간은 최장 3개월입니다. 대여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귀하의 요청이 있을 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대여 기록을 지체없이 귀하에게 반납합니다. 다만, 대여를 허락하여 디지털 변환을 완료한 자료에 대한 사용, 배포 및 공중송신에 관한 권리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귀하로부터 대여받은 기록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습니다. 배상은 기록의 시장 가치에 한하며, 최대 일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훼손이란 기록 가치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사항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주시십시오.

_____ (서명)

[별첨 2] 구술채록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 Oral History)

이 연구는 노근리사건에 관한 증언을 보존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귀하의 이야기는 후대 연구자들이 노근리사건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노근리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이나 노근리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의 수집을 통해, 노근리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근리사건이 조사되고 연구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노근리에 관한 자료는 상당량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사용할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후대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의 중심 정보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가 나누는 노근리 이야기는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희는 노근리사건을 둘러싼 귀하의 기억을 나눠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여러분의 경험, 기억, 회상,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익명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녹음될 것입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녹음된 기록을 저장하고 제공하여 후대의 역사가들과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증언 프로젝트는 오로지 연구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녹음된 파일은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는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됩니다. 네트워크 서버는 뉴욕주립대학(SUNY) 연구 IT 팀에 의해 운영됩니다. 뉴욕주립대 연구 IT팀은 뉴욕주립대학의 연구를 돕기 위해 최첨단 컴퓨팅 기술로 네트워크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내 인터뷰가 녹음되기 원치 않는다면은?

인터뷰가 녹음되기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본 연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하지 않는 대신, 연구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 어떤 위험이나 불편함이 있나요?

본 연구는 원하시는 분만 참여하실 것입니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세요. 즉시 인터뷰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증언의 내용에 관해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가져오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노근리 역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생존자들과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중 발발한 수많은 양민학살 사건 중에서 대표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증언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문서자료들을 비롯, 1차, 2차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노근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함으로써, 사건의 역사와 기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료들로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후대 연구자들과 시민들에게 더 자세하고 정확한 노근리사건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노근리 기억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자 합니다.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저희는 귀하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출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녹음이 되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지우고 아카이브에 보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존되어 공개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법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엄격히 기밀로 보관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 심사회의(Institutional Review Board), 본 연구의 지원기관, 대학과 정부의 담당자들은 수집된 정보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여 도중 중단할 수 있나요? 제 권리는 무엇인가요?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후에도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의 전문적 재량으로 귀하의 참여가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주 연구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 문서의 사본을 드리니 필요하시면 보관하여주세요.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주시십시오.

_____ (서명)

인터뷰가 녹음되길 원하시면 아래 서명해주세요. 녹음을 원하지 않더라도, 본 연구에 여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_____ (서명)

[별첨 3] 이용자의 참여 약관(Terms and Services for User Contribution)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록이나 기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기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스스로 생산/창작한 자료이어야 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사진, 문학, 기타 자료 등의 일부나 전부에 기초 또는 복제한 것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비밀, 보안, 개인정보보호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증된 자료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자료 제출은 아카이브가 자료의 영구적인 사용과 배포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장기 보존을 목적으로 귀하의 자료가 기증될 수도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기록관)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청원에 대한 면책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시 모든 권한을 같이 위임하므로 법률적 책임이나 청원에 있어 면책됩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자료 제출은 아카이브 및 관련된 모든 미디어에서 영구적으로 사용, 배포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게시됩니다. 기증한 자료는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적 이용, 공정이용, 공익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귀하가 제공한 기록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여(예: txt파일을 pdf로 변환) 제공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에 수록된 자료에는 다른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인용표시를 안내하여 원저작자에 대한 크레딧(credit)을 부여합니다.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기록물 게시가 가능합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이후에도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의 “제출”을 누르시는 것은 위의 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제출]